

“하늘길 열린다”...광주·전남 여행업계 기대감에 ‘들썩’

위드 코로나에 여행 문의 잇따라 국내외 고객 모집 등 빠른 대응
전세버스업체 단풍철·현장체험학습 대비...리조트도 준비 분주
네트워크 복원 나선 소규모 업체들, 시간·자금 부담에 지원 절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광주·전남 여행업체들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를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지역 확대 등으로 국내외 여행 문의와 수요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당장, 지역 여행업계는 중·고교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시즌과 가을 단풍·역새 등산객 모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부랴부랴 관련 상품 개발 및 여행객 모집에 나선 상황이다. 11월 중순부터 예정된 싱가포르 등 트래블버블 지역의 여행객 모집에도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숙박 여행객 확보를 위한 지역 유명 호텔·콘도미니엄 확보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경우 비수기인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초·중·고교의 현장체험학습이 부쩍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보다 많게는 50%까지 늘어난 상황이지만,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늦은 단풍철 전세버스 임대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혼식 참가 인원이 확대된 데 따른 전세버스 임대 문의도 늘어나면서 ‘위드코로나’를 실감하고 있다.

전남전세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비수기지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교육 관련 전세버스 임대

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조치가 시행된 1일부터 부쩍 개인 전세버스 임대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여행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중단된 무안공항의 해외 노선이 개설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김포 노선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데 머리를 싸매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의 인천-호놀룰루(하와이) 노선은 오는 3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지난해 4월 중단된 뒤 19개월 만이다. 제주항공도 5일부터 인천-태국 치앙마이 노선에 골프 여행객들을 위한 전세기를 띄운다.

광, 사이판은 이미 운항에 나선 상태지만 좌석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인기다. 싱가포르도 오는 15일부터는 자가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여행지다.

국내 여행지도 들썩거리고 있다. 여수 리조트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없었던 단체예약과 행사문의가 지난 주부터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난 주말까지는 골프여행위주의 소규모 예약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주부터는 여행사들의 문의도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 문의가 이어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라곤 여행업계 설명이다. 상당수 지역 소규모 여행업체들의 경우 2년 가까



모처럼 상담 중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광주·전남 여행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1일 오후 광주시 동구의 한 여행사에서 고객이 해외 여행 상담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기간을 보내면서 여행상품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등록된 여행업체 1504곳 중 대부분이 소규모 여행사다.

이정현 오리온플래닛 대표는 “코로나로 내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부르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숙박업소와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며 끊겼던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려면 최소 6개월~1년 가까이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22개 전남시·군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지난 2018년 5711만1129명에서 2019년 6881만6940명으로 증가하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180만 7571명에 그쳤다. 지역 여행업계는 1년 이상 매출 ‘제로’ 상태에서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받은 대출도

값아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 목소리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국내여행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제도 연장, 여행중보자 교육, 무이자 대출 지원 등 여행업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낮 도로서 7살 아들 무차별 폭행 ‘비정한 엄마’

영상 번지며 누리꾼들 공분

광주 양산동서...경찰 조사

대낮에 도로에서 자녀를 마구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7살난 아들 B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신고 등을 토대로 CCTV 영상을 분석, A씨를 특정했다. A씨의 폭행 장면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서 누

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A씨에게 떼어내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조 활동 방해한

회사 대표·임직원 5명 기소

기아 1차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회사 노조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1년 9개월만에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기아 1차 협력사인 H회사 대표 등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노조측은 애초 회사 임직원 등 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1월 노조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회사 임직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측 주도로 노조(호원노조)를 설립,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

해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검찰은 노조측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관련자 5명에 대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또 검찰의 늦은 기소로 ‘최근 제 3의 어용노조가 생겼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서 드러난 현대산업개발 부도덕 행위

해체공사 감리 선정 개입·참사 당일 일지 작성 지시 등 진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원정인 현대산업개발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업체,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대표 A(여·59)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 신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해체 공사 감리 선정에 현대산업개발의 개입 여부와 참사 당일 일지 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감리 계약 체결 전부터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과 협의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해체 공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참사 당일 공무부장 연락을 받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에 갔다”면서 “공무부장이 공사 관련 자료를 건네며 감리 일지를 쓰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석(광주 북구 을)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권한이 없던 해체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과 사고 당일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해체계획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 “요청은 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해 무책임한 감리 업무 행태도 드러냈다. 한편,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